

“관음보살 자비사상 세상에 널리”

무등산 미륵사, 관음전 3천불 점안

자비의 가르침 실천을 위한 관음 3천불 점안식이 열렸다.

무등산 미륵사(주지 혜법)는 11월 1일 관음전과 3천불 조성을 마치고 점안식을 봉행했다. 관음전은 천수천안 관음보살을 주불로 하고, 주변에 3천개의 관음보살 원불을 조성해 일반인들에게 관세음보살의 자비사상을 일깨우는 의미를 담았다.

주지 혜법 스님은 “관세음보살은 자비사상이다. 자비의 마음으로 봉사단체를 만들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함께 자비사상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조성하게 됐다”고 의미를 밝혔다.

불사는 지난 2018년 10월에 시작해, 60평 규모의 전각을 마련하고 원불조성을 진행해왔다. 행사에는 광주불교연합회장 동현 스님, 소원정사 주지 도계 스님, 관음사 주지 소운 스님을 비롯해 1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해 점안의식과 공양의식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에 완공한 관음전은 기존 일반건물을 사찰에서 직접 리모델링해 불단과 내부시설을 갖춰 첫 선을 보였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지역 불교대학 화합 도모”

제19회 전북 불교대학 한마음체육대회

전북지역 불교대학 재학생과 동문이 한자리에 모여 ‘제19회 전북지역 불교대학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다. 11월 2일 김제 금산중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체육대회는 ‘우리 함께 하면 행복합니다’라는 주제로 전북불교대학, 화엄불교대학, 무주불교대학, 정읍불교대학, 이리불교대학, 수현불교대학 등 6개 불교대학 동문 및 재학생 500여 명이 동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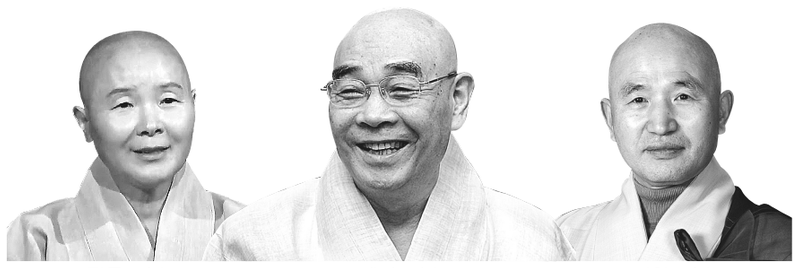
전북사암승가회 주최로 해마다 열리는 체육대회에는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 교무국장 응묵 스님,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총무 우림 스님, 정읍불교대학 학감 우일 스님, 이창구 전북불교대학장, 안준아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장, 조영석 금산중고등학교장 등이 동참했다.

배구, 단체 줄넘기, 2인3각 달리기, 줄다리기 등의 경기와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됐으며, 각 불교대학인들은 화합의 시간을 보냈다.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전북불교대학이 3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제16회 대원상 대상 혜거 스님

불교진흥원, 6일 수상자 발표
수행 대중화 공로 인정받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정목 스님 혜거 스님 지일 스님

출가 부문 특별 · 장려상에는 정목 · 지일 스님 영예 안아
재가 특별상에 여성개발원

불법 홍포에 지대한 공로를 세운 개인과 단체를 발굴 · 시상하는 대원상의 올해 수상자가 발표됐다. 제16회 대원상 대상에는 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장이자 한국명상지도자협회 회장인 혜거 스님이 수상했다.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은 “11월 5일 대원상 최종 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16회 수상자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제16회 대원상 출가부문 대상에는 혜거 스님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별상에는 유나방송 대표 정목 스님이, 장려상에는 한국불교법사대학장 지일 스님이 선정됐다. 재가부문 특별상은 불교여성개발원이 수상했으며, 장려상에는 박찬욱 밝은사람들연구소장 · 일일시호일(대표 심정섭) · 진주불교회(이사장 홍수승)가 이름을 올렸다.

제16회 대원상 대상 수상자인 혜거 스님은 탄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평생을 도심포교와 역경불사에 헌신해 왔다. 특히 금강경 강송대회를 열어 〈금강경〉을 널리 알리는데 힘썼다. 탄허기념박물관을 개관해 일반대중에게 심도 있는 수행과 공부, 문화를 통해 문화 불교를 전파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참선 수행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혜거 스님은 이 같은 공로로 조계종 포교대상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진흥원 측은 “(혜거 스님은)수행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명상지도자들과 함께 수행법 전파에도 기여하는 등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포교와 문화 불사를 모범적으로 수행해왔다”고 공로를 인정했다.

유나방송 대표이자 방송진행자인 정목 스님은 힐링 멘토로서 젊은 세대와 호흡하는 등 시대에 적합한 수행 문화를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장려상 수상자인 지일 스님은 재소자 포교와 불교 인재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재가부문 특별상 수상단체인 불교여성개발원은 여성불교를 이끌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려상 수상자인 박찬욱 소장은 지속적인 학술연찬회 개최와 총서 발간을 통해 지식인 대상 포교의 장을 개척해 온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일일시호일은 이주노동자 병원비 지원 등의 공로가 인정됐으며, 진주불교회는 다양한 신행활동으로 진주 지역 포교를 이끌어왔다.

한편, (재)대한불교진흥원의 설립자인 故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대원상은 현대사회에 적합한 불교정신과 사상의 보급을 위해 모범적으로 정진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상금을 배로 올려, 수상자에게 대상은 2000만원, 특별상은 1000만원, 장려상은 5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한편, 제16회 대원상 시상식은 11월 15일 오후 2시 마포 다보빌딩(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열린다.

생명나눔 대상 박원순 시장

생명나눔실천본부, 제1회 대상 발표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가 올해 처음 제정한 생명나눔 대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생명나눔은 “생명나눔 대상 선정위원회(위원장 김진문)가 최종심의 과정을 거쳐 4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11월 4일 밝혔다.

첫 회 대상 수상자로는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선정됐으며, 홍보상 부문에는 불교신문, 생명상 부문에는 김남명 홍보위원, 나눔상 부문에는 예금보험공사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으로 선정된 박 시장은 지난 2001년 4월 생명나눔을 통해 장기 및 안구기증 희망등록을 하고 장기기증 홍보, 생명나눔 가치의 사회적 실천에 큰 기여를 했다.

생명나눔대상 선정위원회는 “장기기증 등과 같은 생명나눔 실천은 정치 사회 지도자들이 앞장설 때 홍보효과가 극대화 되고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좋은 효과를 준다는 점에서 박 시장의 남다른 실천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선정 직후 박 시장은 “2001년 장기기증을 약속한 후 그동안 어떤 실천을 해왔는지 돌아보게 된다”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나눔의 정신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성민 기자**

국외문화재재단 이사장에 최응천

문화재청 1일 임명… 현역 교수는 처음



해외 반출 문화재 환수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에 최응천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사진〉가 임명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제3대 이사장에 최응천 교수를 임명했다”고 11월 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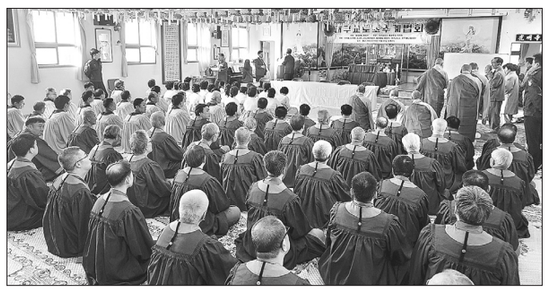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에 현역 교수가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국대 불교미술과와 홍익대 대학원을 졸업한 최응천 교수는 일본 규슈대(九州大) 대학원에서 ‘한국 범음구(梵音具)의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범종 · 정병 등 불교금속공예 연구에 많은 성과를 보였으며, 특히 범종 관련 연구 논문만 40여 편에 이를 정도로 범종 분야에서는 가장 탁견을 가진 전문가로 손꼽힌다. 또한 국외소재 문화재 연구에도 매진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프랑스 기메박물관, 네덜란드 라이덴 박물관 등의 문화재 조사에 참여했다.

최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직 교수로는 처음으로 이사장직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불교 종립대 교수이자 불교미술을 전공한 저를 임명한 것은 해외 유출 불교문화재 환수에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재단 이사장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응천 국외소재문화재단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2년 10월 31일까지다. **신성민 기자**

재소자들의 佛法 귀의

동화사, 대구교도소 재소자 수계법회



팔공총림 동화사(주지 효광)는 11월 5일 대구교도소를 찾아 재소자 수계법회를 열었다. 교도소 내 법당에서 열린 수계법회서는 102명의 재소자들이 계를 받고 부처님 제자로 거듭났다. 계사인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은 “계를 받는 것은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의미를 갖고 있다”며 “계를 받은 수승한 공덕으로 자유와 행복이 충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자비의 쌀 나눈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빛고을나눔나무에 2000㎏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은 지난 10월 29일 광주지역 불교공동모금단체인 빛고을나눔나무(상임이사 보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신도들이 모은 자비의 쌀 2000㎏을 전달했다. 이날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이 기탁한 자비의 쌀은 11월 6일 서구청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가을 담은 산사 문화 ‘활짝’

부산 청량사 ‘노을 물든 산사음악회’



부산 청량사(주지 보혜)는 11월 3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2019 노을 물든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보혜 스님의 3번째 시집인 〈바람이 전하는 말〉의 출판기념회와 함께 열린 이번 산사 음악회는 박우철, 영탁 등 인기가수와 메소드필 하모닉이 함께해 가요와 국악, 클래식을 함께 만나 볼 수 있는 무대로 진행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빙의 치유 사례

◈ 질병 뒤에 숨은 영가확인 천도 병고 치유 ◈

- 수십년동안 신기라는 등의 병으로 고통받은 사례
- 쇠부치 (커터칼, 책스프링, 가위 잘라먹던 사례)
- 거식증 ●이명 ●환청 ●공황장애
- 몽유병 ●가위눌림
- 온몸이 너무 아픈데 병명이 안 나오는 사례
- 밤만 되면 무릎 밑으로 불같이 뜨겁다가 얼음장같이 차가워져 잠을 못자는 사례
- 갑자기 숨을 못 쉴 만큼 호흡곤란
- 음식만 보면 토하는 사례
- 연중 행사식으로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입원, 퇴원 반복 사례
- 집안 내력으로 무당하던 사람들 정리해서 일반인으로 사는 사례
- 중풍으로 쓰러진 사람 (직계)
- 방에서 안 나오고 혼자 중얼거리다가 난폭해지는 사례
- 난폭을 일삼아 정신병원을 수시로 입원하는 사례
- 부인이 남편이 무서워 보인다고 이혼하자는 사례
- 오랜 기침과 가래로 고통 받은 사례
- 팔에 생선비늘이 있다고 칼로 자해하려한 사례
- 이성만 보면 정신이 이상해지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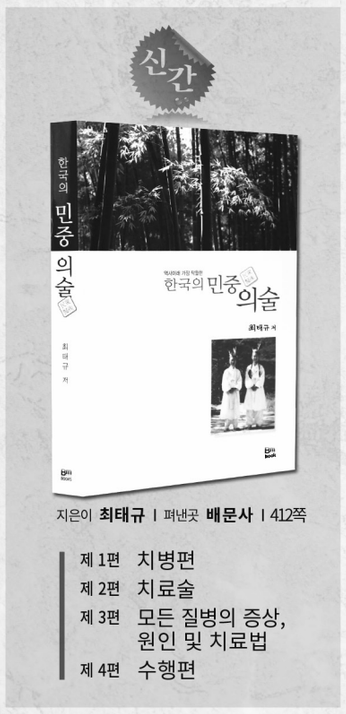
(치유사례가 수없이 많으나 지면상 표기가 힘듭니다)

약사도량 자비정사

031)285-1173, 010-3268-1173 (010-4283-117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민속촌로 75 (용인 한국민속촌 주차장 앞)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民衆醫術 민중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